

10/14(수) 사사기 묵상 3

사사기 1:27-36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

요셉 지파 중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벤엘 지역과는 달리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나안 사람들은 아예 그 땅에 거주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27하반 절-28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므낫세 지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타협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지 않고 노역을 시키며 방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그 어떤 행위(제사, 선행 등등)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삼상 15: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내 생각에 더 좋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 지파들

요셉 지파들 외에도 스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도 그들 지파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 지파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도 유다 지파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철병거와 같은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삿 1:19,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신식 무기가 그들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단 지파는 수치스럽게도 분배 받은 땅에서 아모리 족속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기도 했습니다(34절-35절상,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그 결과 단 지파의 일부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을 피해 유다 지역과 팔레스틴 최북단의 라이스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삿 18:1,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때까지 기업을 분배 받지 못하였음이라; 11-14상, “단 지파의 가족 중 육백 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랴여아림에 진 치니 그러므로 그 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 곳은 기랴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처럼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

하게 됨으로써 가나안 민족들을 모두 진멸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불안한 사사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 주셨습니다(고전 3:16).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소욕(desire)을 따라 살아가기 보다는 육체의 소욕(desire)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되고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엡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에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살전 5: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떠나거나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의 삶을 포기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2. 코비드 19로 인한 2차 팬더믹이 미국과 한국 땅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중보하겠습니다. 특히, 미국내 바이러스 확산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